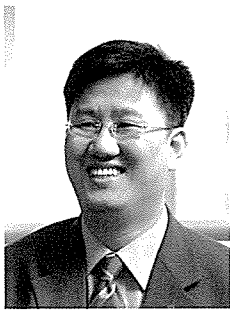


주가조정기에 돋보이는 주가연계상품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제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주식시장

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공격적인 주식형펀드 대신에 주가연계상품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때야 수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지만 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플러스 수익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하루에도 적잖은 수익이 하늘로 날라가는 모습을 덩뎡하게 지켜본다는 것은 웬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비해 주가연계예금(ELD), 주가연계채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의 이들 주가지수 연계상품은 주가 등락에 따라 높은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면서도 상품에 따라 원금보장(ELD) 또는 조건부 원금보장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주가연계 상품들은 개별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종전의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품에 비해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이다. 즉, 기존 주가연계상품이 주로 투자기간 중에 주가지수가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익이 결정되면서 다소 단조롭고 때로는 주가가 너무 오를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던 것에 비해 최근 상품들은 2~3개의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의 상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면 주가연계상품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가연계상품이 어떤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째서 요즘과 같은 조정장세에 더 각광을 받는지 살펴보자. 최근 신한은행에서 판매한 Tops New 2STAR 파생상품투자신탁 SP(3Y)-4호의 경우 대표우량주인 신한지주와 POSCO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상품이다. 상품 명칭에 붙어있는 2STAR는 이 상품이 두 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상품임을 뜻하며, SP는 신한지주와 POSCO 주식의 영문 이니셜이다.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는 3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STAR 상품도 있을 수 있으며, 그 대상 주식도 신한지주나 POSCO 외에 삼성전자, 현대차, 한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상품구조를 보면 주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11.5%의 고금

조건부 원금보존추구형 상품

리를 지급하는 조건부 원금보존추구형 상품이다. 이 때 목표 달성 조건은 기초자산인 신한지주와 POSCO의 기준주가 (기준주가 상품이 모집되고 난 후 3영업일 동안의 해당 주식 평균 종가에 의해 정해진다)가 투자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기준주가의 85%(6개월, 1년), 80%(1년6개월, 2년), 75%(2년6개월, 3년) 이상인 경우다. 즉, 두 회사 주가가 6개월 후 기준주가 대비 15% 넘게만 안 빠지면(85% 수준 이상만 유지되면) 미리 정해진 연 11.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조기상환 되고, 만일 6개월 후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조기상환 기회는 다시 6개월 후로 넘어가 1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이 때의 주가가 기준주가보다 85% 수준 이상이라면 이제 상품은 1년 만에 조기상환 되면서 해당기간 동안 연 11.5%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 받게 되고, 이때도 만일 조기상환에 실패한다면 다시 상품은 6개월 뒤로 연장된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기상환 조건은 완화돼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기준주가의 80% 또는 75% 이상이면 조기상환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만기(3년)까지 총 6차례의 평가기회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품의 최종만기는 3년 이지만 빠르면 6개월 만에도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상품의 경우 조건부 원금보존추구형 상품이어서 가입기간 중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만기 시 원금보존도 가능하다. 즉, 만기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낮아 조기상환 조건을 못 채우더라도 투자기간 중 두 종목 모두 40%가 넘게 하락한 사실만 없다면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만기 시에 최소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40%를 초과해 하락한 경우엔 만기 하락률에 비례해 원금손실 가능)

이처럼 주가연계상품은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발생하는 주식형펀드와 달리 주가가 일정 부분 하락

하더라도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 최근 출시되는 상품들은 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차례의 조기상환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설령 바로 조기상환 되지 않더라도 이후 주가 회복에 따라 계속하여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또 만기 시에도 조건에 따라 원금보존이 가능해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최근 증시 조정에 따라 개별종목의 주가도 고점대비 상당 폭 하락해 있어 투자메리트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시 유의사항도 없지 않다. 주가연계상품의 고수익은 조건이 성립할 때 결정되는 것으로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이자 또는 원금부분에서 손해가 날 수 있다. 또 상품에 따라 기초자산의 종류와 수익달성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선택해서는 곤란하며, 상품내용과 함께 투자 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주가의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상품일수록 수익률은 높은 대신 조기 상환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향후 주가전망과 본인의 투자성향 등을 감안하여 상품을 고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